

국힘 “대한방직 결단” 조지훈 시장 압박

진보당 전북도당, 이춘석에 “즉각 의원직 내려놔야”

“28일까지 수행 능력 냉정히 봐야”
법 앞세운 4년 유예 가능성 비판
“선거 때마다 꺼내 쓸 약이나..
시민 아닌 자광 시간 지키나” 직격

청와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광 사태가 중앙정치권으로 확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정면 비난했다.

도당은 “옛 대한방직 부지는 수 년째 전주의 한복판에 멈춰 서 있다.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착공 이야기가 반복됐지만 시민이 확인한 것은 또 다시 지연된 시간뿐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주시와 자광이 약속한 착공 시한은 오는 28일이지만 자광은 아직 시공사조차 확보하지 못했고 채납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인데 조지훈 전주시장은 이제 와서 주

택법상 5년 이내 착공 규정을 꺼내 들며 사실상 4년의 추가 시간을 열어두고 있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전주시는 지금 자광의 사업 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또 4년 뒤로 미룰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자광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확정된 시공사,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채납 해소, 현실적인 착공 계획을 시민 앞에 분명하게 증명해야 한다”며 “그것조차 하지 못한다면 전주시는 더 이상 특정 기업 하나만 바라볼 것

이 아니라 새로운 시행주체와 시공사, 투자자까지 포함한 대한방직 개발 정상화 방안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전주시가 지켜야 할 것은 자광의 시간이 아니고 전주 시민의 시간이다”며 “전주는 이미 인구 62만 명 선마저 무너졌다.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도 부족한 상황에서 전주의 핵심 부지를 또 다시 수년간 방치할 여유는 없다”고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정철 기자

검찰 불구속 기소에 “구색 맞추기”
“정치·도의적 책임 지지않아” 성토
“지역 유권자 앞 사죄해야” 촉구

진보당 전북도당은 9일 성명을 내고 “8일 검찰이 이춘석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1년 1개월을 기다린 국민과 지역 유권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허탈함과 분노뿐이다”며 “고작 이 정도의 결론을 내리는 데 경찰과 검찰은 왜 1년이 넘는 시간을 끌어야 했는가”라고 성토했다.
또 “지난해 8월 4일 민의의 정당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집권여당의 4선 중진 의원이 보좌관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보좌관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주식거래, 3천만 원 초과 주식의 매매각·미산탁, 고액의 경조사비 수수 등의 혐의가 수사 대상이 됐다”며 “그런데 경찰 수사에 4개월여, 검찰 수사에 다시 8개월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서야 내려진 결론이 결국 사건 초기부터 제기됐던 혐의에 대한 불구속 기소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적 의혹을 키웠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은 검찰 역시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누락·부실 수사와 기소에 대해 검경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진보당은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는 데 1년 1개월이 필요했던 말인가. 여론 무



이춘석 의원

마음으로 최소한의 혐의만 쟁겨 재판에 넘긴 ‘구색 맞추기 기소’ 앞에서 유권자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국회의원은 개인의 신분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수행하고, 자신을 선택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는 자리인데 자신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국민적 논란이 시작된 뒤 1년 1개월이 지나도록 이춘석 의원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당은 “국민과 지역 유권자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하면서도 국회의원이란 지위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모습에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깊은 배신감과 상처를 남겼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기에 앞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고 사죄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을 버리고, 즉각 의원직을 내려놓고 국민과 지역 유권자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더불어민주당 9일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도청에서 이원택지사를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관련기사 2면)
<사진=전북자치도>

전북형 푸드테크 육성 전략 ‘윤곽’...세부사업 구체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중심 기반 구축
14개 시군 특화자원·새만금 연계
오는 11월 종합계획 최종 확정

전북도가 지역 특화자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계한 전북형 푸드테크 산업 육성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9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푸

드테크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주요 추진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용역은 정부의 푸드테크 육성 정책에 대응하고 전북의 농식품 산업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착수했다. 오는 11월까지 산업 비전과 추진전략, 세부 실행과제를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북자치도와 익산

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용역수행기관, 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산업·정책 동향과 14개 시·군 여건,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북에 적합한 육성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푸드테크를 특정 기술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농식품과 제조업을 연계해 생산·제조·가공·유통·수출 전반의 혁신으로 확장하는 방향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자원과 기업, 연구·지원기관을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 같은 방향에 맞춰 민선 9기 도정 방향인 지역혁신성장과 창업생태계 조성, 새만금 연계 산업 육성을 종합계획에 반영한다. 창업·성장지원과 기업유지, 영커기업 확보, 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행과제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산업 기반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거점으로 14개 시·군의 특화자원과 새만금의 물류·개발 여건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구축한다.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신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의 우선 추진 분야와 기능,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향후 정부 공모에 대응할 사업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오는 11월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향후 푸드테크 산업 육성과 신규 사업 발굴에 활용할 방침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풍부한 농식품 자원, 연구·기업지원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지역의 강점을 기업 수요와 연결해 전북만의 경쟁력을 갖춘 실행력 있는 푸드테크 육성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유네스코 등재 -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
List of Unesco - Knowledge, beliefs and practices related to jang making in the Republic of Korea

제 21회 세계인의 입맛, 순창에 달다

순창장류축제

Sunchang Jangryu Festival 4일간
2026. 10.15 목 ~ 10.18 일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순창발효테마파크 일원

순창군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관광공사
청정원 순창

윤 의원은 “징계 결과 공개를 통해
직사회 징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
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1. 소화전 반경 5m
2. 교차로 모퉁이 5m
3. 버스정류소 10m

5. 어린이 보호 구역
6. 횡단보도
7. 인도



전북 취업자 1만1천명 ↓… 고용시장 ‘빨간불’

8월 고용률 63.9% 전년比 0.8%p 하락 제조업·정규 일자리 축소 동시에 나타나

전북지역 고용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만명 이상 줄고 고용률도 하락한 가운데 제조업과 농림어업 등 지역경제의 기반 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정규근로자가 크게 감소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증가해 고용의 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전북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15세 이상 취업자는 99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1천명(-1.0%) 감소했다. 고용률은 63.9%로 같은 기간 0.8%p포인트 하락했다. 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9.2%로 0.4%p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실업자는 1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천명(7.4%) 증가했으며 실업률 역시 1.7%로 0.1%p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활동인구는 100만8천명으로 9천명(-0.9%) 감소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65.0%p포인트로 0.8%p포인트 하락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54만2천명으로 오히려 1만2천명(2.3%) 증가했다.

일할 의사가 있거나 실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실업률 수치만으로 지역 고용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산업별 고용 상황은 더욱 뚜렷한 양극화를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는 11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8천명(-13.7%) 급감했고 농림어업도 1만5천명(-10.1%) 감소했다. 도 소매·숙박·음식점업 역시 8천명(-5.5%) 줄었다.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2만5천명(6.9%), 건설업은 9천명(13.4%)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의 두 자릿수 감소는 지역 산업 기반과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충 측면에서 주목되는 대목이다.

고용 형태에서도 불안정성이 감지됐

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정규근로자는 47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만4천명(-4.8%) 감소했다. 일용근로자도 5천명(-16.5%) 줄어든 반면 임시근로자는 18만4천명으로 2만2천명(13.5%) 증가했다. 성별 격차도 확대됐다. 남성 취업자는 54만5천명으로 3천명 증가했지만 여성 취업자는 44만6천명으로 1만3천명(-2.9%) 감소했다. 여성 고용률도 57.2%p포인트로 1년 전보다 1.7%p포인트 떨어졌다. 지역 고용의 양적 감소와 함께 제조업 및 정규 일자리 축소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전북 고용시장의 체질 개선과 안정적인 민간 일자리 확충이 시급한 과제

/최준호 기자

국민연금,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 실무 검증

‘NPS AI 프론티어’ 출범… 직원 100명 성능 및 적용성 강화

국민연금공단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N-GPT’의 본격적인 현장 적용을 앞두고 직원 100명이 참여하는 실무 검증에 나선다. 국민연금공단은 자체 AI의 기능과 실무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체험단인 ‘NPS AI 프론티어’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NPS AI 프론티어’는 공단 내부에 구축한 생성형 AI ‘N-GPT’를 정식 오픈하기에 앞서 직원들이 직접 실무에 활용하며 성능과 업무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이다. 공단은 실제 사용자인 직원들의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조기에 발굴해 AI 서비스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체험단을 마련했다. 이번 선발된 직원 100명은 단순한 서비스 체험을 넘어 일선 업무에서 N-GPT가 제공하는 답변의 정확성과

업무 적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현장 검증단’ 역할을 맡는다. 동시에 직원들의 AI 활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AI 활성화 촉진자’로도 활동한다. 공단은 프론티어 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현장 의견을 AI 서비스의 성능과 품질 개선에 즉각 반영해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활동 종료 후에는 실제 업무에서 확인한 AI 활용 및 업무 효율화 노하우를 전 직원과 공유해 공단 전반으로 스마트워크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N-GPT의 현장 적용이 본격화되

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상담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NPS AI 프론티어는 현장의 목소리를 AI 서비스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AI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AI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우리 쌀 가공식품, 전북 고속도로 휴게소서 만난다

쌀 소비 촉진 및 청년농 신규 판로 확보

우리 쌀로 만든 가공식품이 전북지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본격 진출한다. 유동 인구가 많은 휴게소를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활용해 쌀 소비를 늘리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까지 확보하는 상생 모델로 주목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등 관계 기관과 추진하는 ‘청년농, 협업·상생의 길을 잇다’

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우리 쌀 가공식품을 전북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26곳에서 이달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립식량과학원이 육성한 청년농업인의 농산물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급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지난 4월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전북본부 휴게소장 협의회, 청년농업인 식량산업포럼 등과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참여 청

년농업인을 선발하고 농산물 생산과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첫 성과로 선보이는 제품은 청년농업인이 우리 쌀을 원료로 개발한 ‘조선부리또다’. 쌀로 만든 얇은 피에 고기 또는 피자 맛 속을 채우고 튀김옷을 입혀 만든 간편식으로 휴게소를 찾는 소비자들에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됐다. 특히 하루에도 많은 이용객이 찾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유통·소비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진청은 이번 사업을 지역 농산물의 가공식품화와 안정적인 유통망을 연결하는 협업·상생 모델로 발전시키고 향후 판로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병석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앞으로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우수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소비자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부안군, 추석 맞이 로컬푸드직매장 특판 행사

부안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부안로컬푸드 직매장 본점과 격포점에서 추석맞이 특별판매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판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주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 기간 동안 제수용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추석 선물세트 70여 종 등 다양한 품목을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온라인쇼핑몰 ‘덧밭할매(www.덧밭할매.kr)’에서도 지난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추석 선물세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부안군은 오는 16일부터 1인당 30만원의 ‘부안형 기본사회 준비를 위한 민생안정지원금(이하 민생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어, 이번 특판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지역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



<사진=부안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채 농촌활력과장은 “이번 추석맞이 특별판매 행사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명절 준비 부담을 덜고 지역 농수산물 소비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사진=김제시>

김제시 ‘전북도 축산인 한마음대회’ 성황

김제시는 9일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와 전주김제완주축협이 주관한 제15회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인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전북 축산인들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고 축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북 14개 시·군 축산인과 축산업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에는 식전행사와 개회식, 전북 한우경진대회로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시·군별 줄다리기, 도전 4종 게임 등 체육대회와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함께 경기를 즐기며 축산인 간 화합과 소

통을 다지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행사장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전북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수혈통을 발굴하기 위한 전북 한우경진대회가 열려 각 시·군에서 출품한 64마리 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25마리 중 최중 15마리가 선발됐다. 또한, 전북지역 축산물 브랜드와 축산 기자재 전시회도 함께 열려 도내 축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축산 관련 제품과 장비를 소개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축시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전북 축산업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 축산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오늘이 자리가 전북의 축산인 모두가 하나 돼 서로 격려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사진=JB전북은행>

전북은행,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2026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후원금 4억 원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도내 아동복지시설의 열악한 학습환경 등을 개선해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지역은행으로서 ESG 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역아동센터 등 30여 곳을 발굴해 환경개선 자원을 지원한다. 특히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더욱 확대 시행하고 있다.

감 높은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이원택 도지사,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명규 회장, 전북은행 박춘원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박춘원 은행장은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미래세대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며, 도민들의 마음속에 가장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등 235곳, 약 6,055명 아동을 대상으로 총 12억 5천여만 원 상당의 ‘JB희망의 공부방’ 사업을 이어 오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JB금융그룹 핵심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더욱 확대 시행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

한농연 전북 “협의 없는 CPTPP 가입 검토 중단하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이훈구·이하 한농연 전북)가 농업계와 충분한 합의 없는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한농연 전북은 9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도 임원과 시·군 회장, 후계·청년농업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PTPP 가입 저지 전국동시시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베트남·영국 등 12개국에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상품 관세를 비롯해 서비스·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에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지향한다. 한농연 전북은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농축산물 추가 관세 인하와 저물관 세할당 확대, 검역조건 완화 등이 농업 생산기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쌀 수입쿼터 확대 가능성과 값싼 수입곡물 유입으로 쌀과 보리·밀·콩 등 식량작물의 가격과 판로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축산과 과수·원에 분야 역시 수입 농축산물과의 경쟁 심화로 농가 소득 감소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농연 전북은 △농업인과 합의 없는 CPTPP 가입 검토 중단 △민감 농축산물 추가 개방 및 검역주권 훼손 방지 △지역·품목별 피해영향평가 공개 △농업 생산기반 및 농가소득 안전망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훈구 회장은 “정부는 수출산업의 이익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누가 희생하고 비용을 부담하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가입 검토에 앞서 지역별·품목별 누적 피해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농연 전북 1만4천 회원은 이경해 열사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농업인의 생존권과 국민 먹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5.저녁 9시~10시 사이에 규칙적인 숙면

(주)에제르농업회사법인

정읍시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에제르농업회사법인이 지난 8일 지역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하며 정읍시민 장학재단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지역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자신의 꿈을 펼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에제르농업회사법인은 지난 7월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정읍시 산내면을 기반으로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와 휴식, 체험거리를 발굴·운영하며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찬중 대표는 “우리 지역의 미래이자 희망인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해 자신의 꿈을 크게 펼칠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으로 지역사회와 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이사장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소중한 장학금을 기탁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자의 뜻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보건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당부

군산시 보건소는 가을철 별초·성모, 농작업, 등산 등 야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는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에 물린 뒤 발생하며, 발열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물린 부위에 검은색 딱지 형태의 가피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활동 전·중·후에 걸쳐 다음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야외활동 전에는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복장(긴 팔, 긴 바지, 모자, 목수건, 장갑, 목이 긴 안팔, 장화 등)을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해야 한다.

△야외활동 중에는 풀숲에 바로 앉지 말고 돛자리를 사용해야 하며,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덧뿌려주는 것이 좋다.

△야외활동 후에는 귀가 즉시 겉옷을 털어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을 해야 한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가을철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삶의 기억을 작품으로”

익산시 ‘마음치유, 봄처럼’ 전시

익산시가 고령층의 삶과 기억을 담은 문화예술 작품을 선보이며 지역사회와 공감의 장을 마련한다.

익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마음치유, 봄처럼’ 참여자들의 작품 전시회를 오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완성한 작품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작품에 담긴 삶의 경험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마음치유, 봄처럼’은 65세 이상 정상군과 치매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음악·미술·수공예 활동을 통해 생애주기별 기억을 회상하고 재조명하는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이다. 예술가와 예술치료사가 참여해 총 20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난 기억을 떠올리고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작품에 담았다. 완성된 작품은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1층 로비와 3층 익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전시 기간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이진운 익산시 보건소장은 “이번 전시가 참여자들의 소중한 기억과 삶의 이야기를 주민들과 나누고 공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그린바이오 벤처 중심지로”

전국 최초 벤처캠퍼스 전체 30실 완판… 유망 벤처 잇달아 입주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민선 9기 핵심 미래 성장동력인 농생명 바이오 산업의 국가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역의 탄탄한 농생명 인프라를 발판 삼아 그린바이오 벤처기업의 창업부터 제품화, 판로 개척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성장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전국 5개 조성 지자체(익산·평창·진주·예산·포항)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연 상징적인 ‘전국 1호’ 거점이다.

지난해 12월 준공 이후 올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유망 벤처기업들이 잇달아 동지를 틀며 연구·창업 공간인 전체 30실이 모두 가득 찼다. 현재 총 29개 혁신 기업이 입주해 활발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총 7억 1,500만 원을 투입해 △사업과 자금 지원 △액셀러레이터(창업 기획자) 육성 △연구 장비 활용 지원 △전문 인력 인턴십 등 4대 핵심 분야를 전폭 지원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육성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 성과 평가를 거쳐 내년도도 실효성 높은 지원을 이어간다.

시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입주 기업들이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꼽는 ‘신제품 인허가 및 까다로운 규제 대응’을 행정적으로 전폭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7년부터 5년간 100억

<사진=익산시>

원을 투입하는 ‘그린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를 정부에 정식 건의하고,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국비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를 펼치고 있다.

김문혁 익산시 바이오농정국장은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전국 1호라는 상징성을 넘어 전실 입주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미래 산업의 잠재력을 입증했다”며 “탄탄한 성장 사다리를 통해 익산을 대한민국 그린바이오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중심지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하반기 수종전환 방제 ‘착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두동산 등 152ha 대상

정읍시가 소나무재선충병이 집단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두동산 등 152ha를 대상으로 하반기 수종전환 방제에 착수했다.

사업 대상지는 두동산 일원인 고부면 만수리를 비롯해 소성면과 흑암동, 용계동, 공평동 일원이다. 시는 9월부터 대상지 내 소나무류를 벌채해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올해 수종전환 방제 규모는 총 285ha다. 시는 상반기에 133ha의 방제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52ha에서 하반기 사업

을 진행한다.

그동안에는 감염목과 고사목을 한 그루씩 제거하는 단목 방제를 주로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같은 지역에서 감염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감염원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 전략에 따라 집단·반복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수종전환 방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종전환 방제는 피해가 심한 지역의 소나무류를 벌채한 뒤 재선충병에 걸리지 않고 지역 기후와 산림환경에 적합한 나무로 바꾸는 방식이다. 감염목 제거를 넘어 반복적인 피해 발생을 줄이고 건강

한 산림으로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예방 방제도 병행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고부면과 복면, 덕천면 일원 84ha를 대상으로 합제 나무주사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히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가 반복되는 산림을 건강한 숲으로 바뀌 미래의 산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에는 지역 환경에 적합한 나무를 심어 새로운 숲을 조성하겠다. 대규모 벌채 과정에서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추석 전 농민 공익수당 85억 푼다

다이로움 선지급 완료 기프트카드 순차 배부

익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가 경제 부담을 덜고 침체된 고품목상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총 85억 원 규모의 농민 공익수당을 조기 지급한다.

익산시는 9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식량 안보와 환경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온 지역 농업인 1만 7,693명을 대상으로 ‘2026년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연휴 전까지 차질 없이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촌 고령화와 영농자재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해 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돕는

제도다.

시는 1년 이상 익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실제 영농에 종사해 온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격 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지급액은 1인 경영체에 연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에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구성원 1인당 30만 원씩이다.

익산시는 이른 추석 명절을 맞아 농업인들이 제수용품 마련과 명절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맞춤형으로 발 빠르게 구성했다.

즉시 충전이 가능한 지역화폐 ‘익산사랑상품권 다이로움’ 지급 대상자 8,847명에게는 지난 7일 선지급을 마쳤다.

기프트카드 수령 대상자 8,846명에

게는 카드 제작이 완료되는 오는 14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순차적으로 배부해 명절 장보기에 곧바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발급받은 수당은 5년간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고품목상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익산시 농민 공익수당은 2020년 도입 첫해 1만 1,691명에서 출발해 올해 1만 7,693명으로 6,000여 명(약 51%)이 늘었다.

김문혁 익산시 바이오농정국장은 “추석 명절 전 신속하게 풀리는 85억 원의 수당이 농가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도 훈훈한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KB국민은행·기아대책, 군산 소외계층 지원

추석 명절 맞아

식품 꾸러미 70상자 기탁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9일 KB국민은행과 NGO 단체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식품 꾸러미 70상자(7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서성수 KB국민은행 군산종합금융센터 지점장, 오병상 기아대책 본부장, 송기섭 군산신영시장상인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나눔은 매년 KB국민은행과 기아대책이 함께 추진하는 ‘명절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역 전통시장에서 직접 구입한 밤, 표고버섯, 생선류, 젓갈류 등 명절에 필요한 9가지 품목으로 식품 꾸러미를 구성해, 소외계층 지원은 물론 지역 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KB국민은행 군산종합금융센터 서성수 지점장은 “추석을 맞아 지역의 어려

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 전통시장에도 힘을 보태고자 이번 기탁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매년 명절마다 잊지 않고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KB국민은행과 기아대책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기탁된 식품은 지원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희망복지박람회’ 개최

복지서비스 한자리에

군산시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월명실내체육관에서 ‘2026년 희망복지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다. ‘복지로’라는 주제 아래 ‘하나되는 군산, 행복해지는 시민’을 부제로, 시민들이 복지서비스를 한자리에 직접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는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비롯해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홍보·체험 부스, 먹거리 및 프리마켓, 문

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실내 39개, 실외 6개 부스가 마련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이번 박람회를 시민과 사회복지기관·단체가 함께 소통하고, 지역의 복지서비스와 자원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희망복지 박람회가 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추석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위문

최정호 시장, 소통행정

익산시가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행정에 나섰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9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 생활인과 종사자들을 만나 명절 인사를 나눴다.

이번 방문은 추석을 앞두고 시설 생활인과 온정을 나누고, 지역사회에 이웃돌봄과 나눔의 의미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 시장은 생활인들의 거주 공간을 둘러보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고

안부를 물으며 추석 덕담을 건넸다.

이어 시설 종사자들과 만나 근무 여건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활인들의 일상을 세심하게 돌보는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정호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돌봄 현장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종사자 여러분 덕분에 지역의 복지 전망이 더욱 촉촉해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풍요롭고 평안한 한가위를 누릴 수 있도록 일상 속 나눔과 연대의 문화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군산해경>

군산해경, 가을철 낚시어선 안전캠페인 추진

이용객 증가대비 해양사고 예방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주말이 급어기 해제와 가을철 성어기(9~10월)를 맞아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군산 비응항 선원복지회관 앞에서 낚시어선업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군산해경을 비롯해 군산시, 군산시보건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낚시어선업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낚시어선 내 음주 및 흡연행위 금지 △출항 전 장비점검 △과승 금지 등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는 총 69건으로, 이 가운데 가을철인 9~10월에 22건(약 32%)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대 해양사고에 해당하는 충돌사고도 1건 발생했으며, 주요 사고 원인은 운항 부주의 등 인적 과실로 분석됐다.

김영식 해양안전과장은 “출항 전 장비점검과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교육

정읍시가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해 가금농가와 관계기관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방역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7일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방역 순화교육을 열고 농장 안팎에서 지켜야 할 차단방역 수칙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이번 교육은 2026~2027년 동절기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앞두고 가금농가의 자율방역 의식을 높이고 농장 단위 차단방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동물위생시험소, 질병관리청, 한국가금수의사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가금류 사육 현황과 방역정책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과 자율 차단방역 방안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감염병의 인체 감염 예방법 등을 설명했다.

특히 겨울철에는 철새 이동과 낮은 등의 영향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기본 방역수칙을 농가가 반복해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가금농가에 대한 방역지도와 예찰을 강화하고 소독 지원과 방역시설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가와 방역기관 간 협조체계도 긴밀하게 유지해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군의회 ‘인구 5만’ 사수 총력

피켓 홍보로 인구 위기 극복
솔선수범... 전 의원·직원 한뜻

고창군의회(의장 박성만)는 9일,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위협받는 관내 ‘인구 5만명 선’을 사수하기 위해 ‘고창爰 살아볼래요-고창군 주수 갖기’ 및 인구 5만 수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그동안 고창군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자연 감소로 인해 인구 5만명 선마저 위협받으며 절박한 지역소멸 위기를 겪어 왔다. 이에 고창군의회는 유관 기관과 사회단체, 군민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직접 솔선수범해 거리로 나섰다.

이날 박성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군청 앞 회전 교차로에서 출근길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창군의회는 9일, 관내 ‘인구 5만명 선’을 사수하기 위해 ‘고창爰 살아볼래요-고창군 주수 갖기’ 및 인구 5만 수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사진=고창군의회>

피켓과 플래카드를 활용한 대대적인 거리 홍보전을 펼쳤다.

박성만 의장은 “고창의 역사와 자긍심을 지탱하는 인구 5만명 선은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최후의 보루”라며, “관내에 실제 거주하면서도 아직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의 미래, 청년과 함께 만든다” 2(題)

제4기 청년정책위원회 위촉

부안군은 지난 8일 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부안군 제4기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안군 청년정책위원회는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청년정책 사업의 제안 및 자문 등 부안군 청년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번 제4기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비롯한 당연직 위원과 농업·산업·교육·행정·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청년들로 구성해 청년 당사자의 정책 참여

기반을 강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어 열린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부안군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일자리·주거·문화·참여 등 분야별 주요 청년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방상윤 부안 부군수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미래를 꿈꾸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청년정책의 핵심”이라며 “청년정책위원회가 청년과 행정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로서 활발히 활동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 청렴포럼’ 성황리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8일 저녁 부안청년UP센터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의 미래 정책을 함께 모색하는 ‘2026 부안 청렴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이 그리는 부안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지역 청년과 주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1부 토크콘서트에서는 김소영 에스와이지역정책연구원장, 정소혜 무안군의회 의원, 윤나연 부안 시그르친천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현실적인 삶과 정주 여

건, 지역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진 2부 정책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이 그룹별로 나누어 부안에 필요한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포럼은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청년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군정에 반영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의회 예결위, 결산 심사 개시

김영자 위원장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 철저히”

김제시의회(의장 이정자)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를 중심으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2025 회계연도 김제시 결산 총규모는 세입 1조 4,087억 원, 세출 1조 2,373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71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이월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반납금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7억 원으로 전년(231억 원) 대비 32.2% 감소해, 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위축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예결특위는 첫날 심사부터 지난 4월 결산 감사에서 제시된 시정·권고사항을 심사의 핵심 잣대로 삼고, 시정 전반의 예산 집행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특히 결산 감사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국·도비 보조금 반납 최소화 △주요사업 추진 진도를 제고 △이월 없는 전액 미집행 사업 방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전체 이월액의 83.4%가 문화·관광, 국도·지역개발 등 4개 분야에 편중된 점을 꼬집으며 연례적인 집행 지연을 질타했다.

이율러 세입 결손 대응을 이유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서 470억 원을 일반회

계로 전출해 기금 잔액이 102억 원 수준까지 감소한 점을 지적하고, 재정 완충여력 확보를 위한 재직립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결산 심사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된 예산이 시민 복리 증진에 얼마나 실질적인 보탬이 됐는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관행적인 사업 이월과 불용, 감소한 재정안정화기금 규모 등 시의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꼼꼼히 점검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올바르게 환류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하고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 안정 돕는다

고창군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신혼부부 및 청년 가구로,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잔액의 최대 2%까지 연간 최대 2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주거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 착안해 추진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신혼부부와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정착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기간 및 세부 지원요건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다둥이가정 출산 축하

인구정책 지원 전달

김제시가 열 번째 자녀 출생으로 큰 경사를 맞이한 광활면의 다둥이 가정을 방문해 김제시의 든든한 인구정책 지원책을 전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시는 9일 열 번째 자녀를 출산(8월 7일)한 이승현·김미정 씨 부부 가족을 찾아 ‘열 번째 행복, 김제가 함께 축하합니다’ 이벤트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한 가정의 경사를 넘어, 저출생 시대에 귀감이 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제=온봉기 기자

이날 방문에는 정성주 시장을 비롯해 전북은행, 광활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산 축하물품과 인구정책 지원금, 그리고 지역사회에 정성이 담긴 후원금을 전달하며 기쁨을 함께했다.

정 시장은 부부와 대화를 나누며 다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실질적인 고충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김제시의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 시장은 “현장에서 들은 양육 고충과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김제시를 만들고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53회 고창모양성제’ 준비 돌입

추진상황 보고회 열어

고창군이 지난 8일 군청 회의실에서 제53회 고창모양성제 1차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축제 프로그램을 비롯해 안전·교통·환경·편의대책 등 분야별 준비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추진상황과 협업사항을 공유하고, 관광객의 입장에서 축제장 전반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행사장별 동선과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비롯해 교통·주차대책, 안전관리, 먹거리 운영, 환경정비, 편의시설 등 축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분야별로 살피고 마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전통을 잇고, 미래를 엮다’를 슬로건으로 고창읍성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면서 관람 중심에서 벗어나 관광객이 직접 걷고, 체험하고, 참여하는 축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창읍성 곳곳의 아홉 절경을 따라 이야기와 놀이, 임무를 수행하는 신규 프로그램 ‘모양성 유람록’을 선보이며, 답성놀이와 거리퍼레이드 등 전통 콘텐츠도 한층 강화한다. 여기에 블랙이글스 에어쇼, 세대별 공연·체험 프로그램 등을 더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밀 예정이다.

세계유산과 나윤옥 과장은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세부 실행계획에 적극 반영해 방문객들이 ‘올해 모양성제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53회 고창모양성제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고창읍성과 일원에서 개최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문화예술 향유 ‘부안예술제’ 성황

예술인·군민, 문화예술로 소통

부안군은 부안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열정과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가 어우러진 제25회 부안예술제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부안예술회관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안지회가 주최하고, 국악·미술·문인·음악·사진작가·연예예술인협회 부안지부가 함께 참여한 이번 예술제에는 예술인과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해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며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5일 열린 개막식에서는 제19회 부안예술문화상 시상식을 통해 지

김제시 ‘새만금 기본계획에 신항 포함해야’

김제시는 지난 8월 24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모아 새만금개발청에 적극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새만금 신항의 사업지역 포함을 비롯해 전략적 유보지 조기 개발, 심포배수지 신설, 내수면 수산용지 조성, 수변도시 3공구 조기 조성 등 지역 현안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최종 계획에 담기 위해 이뤄졌다.

시는 무엇보다 기존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던 새만금 신항이 이번 변경안의 사업지역과 면적에서 제외된 데 깊은 아쉬움을 표하고,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주민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

신항은 새만금 산업단지와 농생명융지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출입을 담

‘2026 고창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 61점 선정

고창군이 ‘2026 고창 관광사진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관광자원을 담아낸 우수작품 61점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212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통해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가작 5점, 입선 50점 등 총 61점이 최종 선정됐다.

심사는 지난 6일 한국사진작가협회 관계자 등 5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1차 심사에서 평가위원별 선정을 통해 입선작 61점을 선정 한 뒤, 2차 심사에서 해당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진행됐다.

특히 올해 공모전에서는 고창갯벌, 무장읍성, 선운사, 청보리밭, 고인돌 등 고창을 대표하는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최근 문을 연 황윤석도서관과 같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관광지, 내죽도와 개갑장터순교성지 등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자원을 담은 작품들도 다수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나윤옥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잘 알려진 대표 관광지뿐만 아니라 황윤석도서관을 비롯해 그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관광자원을 담은 작품들이 많이 선정돼 뜻깊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제19회 김제시 보육인 한마음 대회 개최... 교직원 노고 격려

김제시는 김제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화정)와 지난 8일 김제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보육 현장 최일선에서 애쓰는 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2026년 김제시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김제시 보육인 한마음대회’는 보육현장에서 헌신하는 보육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과 소통을 통해 일상의 피로를 씻어내는 힐링의 장으로 마련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보육 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 수여, 아동권리실천 결의문 낭독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조소희와 함께하는 힐링 토크 콘서트를 통해 보육교직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아이와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김제를 만드는데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농촌개발대학 화합행사 “전문농업인 성장 지원”

고창군이 9일 선운산 일원에서 고창농촌개발대학 학생들과 함께 자연을 가꾸고 화합을 다지는 ‘2026년 고창농촌개발대학 화합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심덕섭 고창군수(학장)를 비롯해 농식품창업과, 수박·멜론과, 복분자과, 블루베리와 등 4개 학과 교육생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화합행사는 교육생들이 선운산 산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플로깅(Plogging)’ 활동으로 시작했다.

농업인 교육생들은 지역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함께 가꾸는 뜻깊은 봉사활동을 마친 뒤, 이어 열린 개회식에 참석해 서로 간의 교류와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만중 학생자치회장은 “오늘의 화합이 교육생들의 단결과 고창 농업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영농 여건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남원 모노레일 책임 규명 시민위 가동

사업 과정 분석 책임 소재 규명 시설물 소유권 확보·정상화 모색

남원시가 모노레일 사태의 철저한 원인 분석과 책임 규명,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10일 ‘모노레일 사태의 책임규명과 정상화 추진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위원회는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해 모노레일 사업 추진 과정과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면밀히 분석한다.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살펴보고, 모노레일 관련 시설물의 소유

권 확보, 향후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모노레일 적정성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시민위원회와 연계 추진해 정확한 유지 비용 및 향후 운영 실효성 등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남원테마파크㈜ 명의로 남아있는 모노레일 시설물 소유권 확보를 위해 법적 대응절차도 진행중이다. 시는 지난 2월 5일 손해배상금 약 504억원을 변제 완료한 즉시, 이를 회수하기 위해 후속조치로 3월에 남원테마파크(주)를 상대로 504억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및 가압류를 신청했고 4월에 부동산 가압류 및 배당요구 절차를 모두 완료하며 즉각적인 법리 대응 상황을 전했다. 해당 소송의 선고는 오는 10월 8일 예정돼 있다.

또한, 구상금 청구 소송 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에 따른 부동산 낙찰대금을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양충모 시장은 “시민들과 시의회에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남원관광지다. 민간개발사업으로 인해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한 점을 남원시장으로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파크골프 열풍…대형 구장 조성 잇따라 2(題)

순창군, ‘공인’ 36홀 섬진강 파크골프장 개장

순창군은 9일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섬진강 파크골프장’ 개장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의 막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순창군의회 오우환 의장, 순창군체육회 손종호 회장, 전북특별자치도 파크골프협회 정한수 회장, 순창군 파크골프협회 임춘기 회장 등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 파크골프협회장단이 자리를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식전 내빈소개를 시작으로 김성업 체육진흥사

완주군 ‘전북 최대’ 만경강 파크골프장 재착수

완주군이 전북 도내 최최이자 최대 규모인 45홀 규모의 ‘만경강 파크골프장(봉동천변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을 이달 초 재착수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단일 파크골프장 최대 규모가 36홀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업으로 전북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 거점이 완주에 들어서게 된다.

군은 약 6만㎡ 부지에 45홀 구장을 완성해 급증하는 군민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전국 단위 대회 개최와 대규모 스포츠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9월 착공했으나, 전북지방환경청의 만경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발맞춰 일시 중지했다가 최근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며 공사를 재개했다.

특히 전북지방환경청의 ‘만경강 고산1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과 연계해 예산 절감 효과를 톡톡히 거뒀다. 하천정비 과정에서 나온 흙을 파크골프장 부지 돌움재로 재활용해 별도 토사 확보와 운반 비용을 대폭 줄였다.

군은 후속 공정을 차려회 진행해 올해 말까지 전체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글로벌캠퍼스 조성 ‘속도’…내달 착공

남원시·전북대, 설립 현장보고회 2028년 2월까지 캠퍼스 조성 완료

남원시와 전북대학교는 9일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벌캠퍼스에서 남원시장과 전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벌캠퍼스 설립 추진 상황 현장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남원 글로벌캠퍼스 설립과 관련한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계획과 기관 간 협력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북대학교는 남원 글로벌캠퍼스 설립 추진 상황과 시설 조성계획, 향후 추진 일정을 설명했으며 남원시는 주변 환경 정비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양 기관은 사업별 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답변과 함께 캠퍼스 조성 과



<사진=남원시>

지에서 필요한 협력 사항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보고회 이후에는 본관을 비롯한 주요 시설과 사업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시설 조성 계획과 추진 여건을 확인했다.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벌캠퍼스는 2026학년도에는 1학기 171명, 2학기 71명 등 총 242명이 입학했으며, 현재 학생들은 전주캠퍼스에서 수학과 있다.

전북대학교는 남원글로벌캠퍼스 리모델링 설계를 마치고 오는 10월 공사에 착수해 2028년 2월까지 캠퍼스 조성을 완료한 뒤 학생 이전과 본격적인 학사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시도 캠퍼스 조성 일정에 맞춰 학생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캠퍼스 내 유공공간과 주변 환경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국토부·LH에 삼봉2지구 조속 추진 촉구

“산단근로자 주거 수요 충분… 산단 개발맞춰 적기 공급 필요”

완주군이 지역 현장을 찾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에게 ‘완주삼봉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삼봉2촉진지구는 봉동읍 고천리 일원 98만 1,929㎡에 7,006세대, 계획인구 1만6,107명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LH가 지난 2022년 2월 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국토교통부가 같은 해 12월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했다. 당초 2024년 지구계획 승인과 2025년 보상 및 착

공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후속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군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관계자들과 삼봉1·2지구와 관내 산업단지를 둘러보고 기존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세대교체에 따른 잠재수요, 신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추가 수요를 확인하고 투자 타당성을 입증했다.

현재 완주군에는 320만 평의 산업단지가 조성돼 450여 개 기업, 2만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19만 평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와 31만 평의 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삼봉2지구는 삼봉1지구와 완주

산업단지에 인접해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로서 입지 여건이 우수하다. 삼봉1지구와 연계해 조성되면 산업단지 근로자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하고 부족한 생활 기반시설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지구계획 수립부터 승인, 보상과 주택 공급까지 약 6~7년이 소요되는 만큼, 산업단지 준공 이후 사업에 착수하면 적기에 배후 주거지를 공급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관계자들이 산업단지의 성장 가능성과 배후 주거지 조성의 시급성을 직접 확인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군의회·상인회 등 50여명 참여 가격표시제 홍보 등 병행 활동

완주군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상권 회복,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 8일 삼례전통시장 일대에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완주군의회, (사)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완주지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완주지부, 시장 상인회, 유관단체,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며 생필품과 추석에 가족과 함께 나눌 물품을 구매했고, 장날 시장을 찾은 군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전통시장 이용과 지역경제 살리기 동참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완주



지부가 동참해 물가안정을 위해 착한가격과 가격표시제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김종년 완주군 경제살리기본부장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군민들이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족과 함께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군민들이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지역 경제에 힘을 보태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축산농가 퇴·액비 부속도 무료검사

가축분뇨 안전처리지원화 지원 신고농가 연 1회·허가 6개월 1회

순창군농업기술센터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부속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며 농가의 검사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센터는 지난 2020년부터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부속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며 농가의 검사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센터는 지난 2020년부터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부속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가축분뇨의 안전한 처리와 자원화를 지원하고 있다.

퇴비 부속도 검사는 가축분뇨가 농경지 등에 살포되기 전 충분히 부숙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지난 2021년 3월 25일부터 검사 의무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면적 1,500㎡ 미만

의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1,500㎡ 이상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속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축산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가축분뇨를 전문 처리업체 등에 전량 위탁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가 쌓여 있는 여러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골고루 섞어 약 500g을 준비해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 방문·의뢰하면 된다.

시료 채취와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063-650-562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돌봄 사각지대 선제 발굴 전수조사 나서

10월말까지 우선발굴필요군 조사 8577명 대상 읍면 전담 인력 투입

완주군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10월 29일까지 ‘통합돌봄 우선발굴필요군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총 8,577명으로 군 본청과 13개 읍·면 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현장에 투입된다.

이번 조사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을 발굴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및 등급외자, 등급판정 각하·기각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고령 장애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연계군 등 돌봄 필요성이 높은 주민들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현장 체험의 날 ‘성황’

남원시는 9일 인월면 취암마을에서 주민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맞이 ‘찾아가는 현장체험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찾아가는 복지 상담(주민복지과)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재정과) △혈당·혈압 체크(보건소)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120인원봉사대의 취약계층 대

상 활동이 눈길을 끌었다. 전가·가스·수도·보일러·농기계 점검 및 수리를 비롯해 이동빨래방, 청소 서비스가 제공됐으며, 올해 새롭게 도입된 미용봉사까지 더해졌다.

이날 양충모 남원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따뜻한 덕담을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양시장은 독거노인 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기, 가스 안전을 꼼꼼히 살핀 후 어르신에게 명절인사를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직무 역량 제고

순창군은 지난 8일 청년문화센터 1층 다목적실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와 참여기관 간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참여자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는 동시에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일하는 나, 성장하는 우리’를 주제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의 역할과 갈등관리 △소통과 대화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실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참여자들이 단순히 지원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직장 내에서 서로 존중하며 원활하게 소통하는 방법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수칙 등을 공유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장애인일리리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청년농 지역 쌀 가공식품 전북권 휴게소 26곳 입점

남원시는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경영체인 ‘메밀꽃피는 향아리’의 쌀 가공식품 ‘조신브리또’가 전북권 고속도로 휴게소 26개소에 입점해 9월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휴게소 입점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청년농, 협업·상생의 길’에 있다’ 업무협약의 후속사업으로 추진됐다.

메밀꽃피는 향아리는 지역산 쌀을 활용해 다양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청년농식품기업으로, 지난해 2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청년 창업의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판매되는 ‘조신브리또’는 우리 쌀로 만든 이색적인 쌀 가공식품으로, 앞서 지난 7월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서 도내 휴게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식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제품 보완과 입점 협의를 거쳐 전북권 고속도로 휴게소 26개소에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이번 휴게소 입점은 청년 농업인의 아이디어와 지역 농산물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실제 판매 확대로 이어진 의미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오성현옥마을, 19일 가을 정원축제 펼친다

완주군 소양면 오성 한옥마을 일원에서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제8회 오픈가든축제’가 열린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오프가든축제에는 오성 한옥마을의 아름다운 한옥경관과 종남산·위봉산의 수려한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주민 주도형 마을축제다. 축제운영위원회(위원장 신영두)는 주민들이 정성껏 가꾼 마을 정원과 생태길길을 선보인다.

한옥문화센터 잔디마당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마을정원·생태숲길 탐방을 비롯해 다도, 민속놀이, 티코스터 만들기, 야외 피크닉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체험은 무료로 운영된다.

오성한옥마을은 고즈넉한 한옥과 어우러진 자연풍광 속 삶의 공간으로 한옥스테이, 카페, 갤러리, 한옥문화센터 등이 자리하고 있다. 정성스레 일구는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가 가을 마을을 거닐며 지역의 정취를 느껴볼 수 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 100선’과 농림축산식품부 ‘스타마을 20선’에 선정되는 등 완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부안 보안면지사협, 추석 맞이 사랑나눔 꾸러미 전달

부안군 보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임한석, 공공위원장 이철기)는 9일 추석 명절을 맞아 사랑나눔 꾸러미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석명절 사랑나눔 꾸러미 지원사업은 보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명절마다 반찬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소외감을 해소코자 마련된 사업이다.

이날 전달식은 이장회의와 겸하여 진행, 꾸러미는 찜갈 2종 세트로 마련되었으며, 각 마을별 이장을 통하여 1세대씩 배부, 총 50세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임한석 민간위원장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사랑나눔 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지역 취약계층의 소외감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이철기 공공위원장은 “후원금으로 지역복지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 구입으로 홍보 및 지역사회 경제 활력에도 이바지하여 선순환 구조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진안 정천면 주민자치위원회 환경정화 활동 실시

진안군 정천면 주민자치위원회는 9일,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귀성객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석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주민자치위원 21명과 정천면 사무소 직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천면의 주요 도로변과 하천가, 그리고 귀성객들의 발길이 잦은 공공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깨끗한 정천면 만들기 구슬땀을 흘렸다.

주보국 주민자치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청정 정천면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민 정천면장은 “명절을 앞두고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해주신 주민자치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정천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27년 현장 지킨 정읍시 임을섭 환경관리원 표창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표창

27년간 정읍의 생활환경을 지켜온 환경관리원 임을섭(58) 씨가 지난 4월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환경미화원의 업무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고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시·군·구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모두 20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임 씨는 전북에서 유일

하게 이름을 올렸다.

임 씨는 1999년 11월 임용된 이후 27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 왔다. 현재는 반장을 맡아 현장운영과 직원 관리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 배출 취약지역과 무단투기 민원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도와 시민 홍보에 힘써왔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한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

/정읍=김정민 기자



완주군, 어르신 ‘디지털 손주단’ 출발!

기업·공공기관 임직원들 어르신 디지털 교육 나서

완주군이 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평생학습을 지역사회 재능나눔으로 연결하는 ‘디지털 손주단’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디지털 손주단’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1:1 맞춤형 반복·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강사 중심 집단교육에서 벗어나 임직원들이 어르신 곁에서 직접 알려드리고 반복해서 실습을

도와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를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완주군은 지난 5월 19일 완주군시설관리공단 및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 지역사회 평생학습 활성화와 재능나눔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첫 실천으로 완주군은 지난 7일 이서면과 운주면 성인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손주단’ 첫 번째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이서면에서는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임직원 10명, 운주면에서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임직원 6명이 참여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손주 역할을 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김제 새마을지도자 백구면協, 도배 봉사활동

김제시 백구면 행복복지센터는 새마을지도자 백구면협의회(회장 이재선)가 9일 관내 취약계층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배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홀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 가구로, 오랜 기간 도배를 하지 못해 벽지가 심하게 낡고 훼손되어 곳곳에서 벽지가 떨어지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새마을지도자 백구면협의회 회원들은 어르신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찾아 도배 봉사사에 나섰다.

이재선 회장은 “어르신께 조금이나마 쾌적한 생활공간을 마련해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에너지 다드림 봉사단, 남원 취약계층 안전 챙겨

노후 전기·가스 등 무상점검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에너지 다드림 봉사단’이 지난 8일 남원시 덕곡면 만동마을 일원에서 민관합동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도내 주요 에너지 유관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해 전문성을 살린 재능기부에 나섰다.

이날 봉사단은 만동마을 주민 10가구를 가정을 비롯한 취약계층 10가구를 직접 방문했다.

각 가구의 노후화된 전기 배선, 콘센트, 조명 기구를 점검 후 교체하고, LPG·도시가스 배관과 보일러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남원=정하복 기자



전주시정연구원, 송천동 도매시장 화재 성금 기탁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 송천동 도매시장 상인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와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은 9일 윤동욱 부시장과 박미자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복구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주시정연구원은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한 성금 155만 원을 기탁했다.

연구원은 전주시정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시와 시의회의 주요 현안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성금 기탁을 통해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피해 상인들의 회복을 응원하는 데 동참했다.

시는 이번 성금이 피해 상인들의 생계 부담을 덜고 시설 복구와 영업 재개를 위한 회복 과정에 작은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익산 삼성동지사협 '행복꾸러미'로 온정 나눔

익산시 삼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정선·민간위원장 권석정)는 9일 지역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행복꾸러미’ 지원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꾸러미는 생필품과 식료품 등 가구당 10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 등 총 32가구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각 가정에 전달할 행복꾸러미를 직접 포장한 뒤 대상 가구를 방문해 전달했다. 특히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안부와 생활 상황도 함께 확인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함께하는 에너지 절감 캠페인

환경을 위한 실천, 작은것부터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 이용대신 계단 이용하기



퇴근시, PC 등 사용하지 않는 전원끄기



불필요한 메일 삭제하기

〈一事一言〉



약자의 신, 침묵의 다른 이름

박보경

작가·前 국회정책연구위원

엔도 슈사쿠, 『침묵』을 읽고

엔도 슈사쿠의 『침묵』을 다시 읽는다. 이 소설을 실천윤리의 우화로 읽는 것은 흔한 독법이지만, 정확한 독법은 아니다.

로드리고 신부가 후미에 앞에서 겪는 것은 원칙과 실용 사이의 선택이 아니다. 엔도가 도달한 것은 신 개념 자체의 전복이다. 강하고 심판하는 아버지의 신에서, 약하고 함께 짓밟히는 신으로. 이 ‘약자의 신’, ‘동반자 예수’라는 개념은 이후 『사무라이』, 『깊은 강』에서도 반복되는 엔도의 일관된 신학적 주제다. 그레이엄 그린의 엔도를 20세기 기독교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로 꼽은 이유는, 순교의 비극을 그려서가 아니라 이 전복을 문학의 언어로 완수했기 때문이다.

17세기 일본, 도쿠가와 막부는 기독교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신자들에게 배교를 강요했다. 신자를 즉결 처형하는 대신, 다른 신자의 고통을 눈앞에 보여주며 굴복을 유도했다. 로드리고는 예수의 얼굴이 새겨진 동판, 후미에를 밟으라는 요구를 받는다. 밟으면 신자들이 풀려나고, 밟지 않으면 고문이 계속된다. 엔도가 설계한 것은 배교냐 순교냐라는 이분법 자체의 붕괴다. 신학적으로는 후미에를 밟는 행위가 배교이지만, 그 순간 로드리고를 지배하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눈앞의 고통이다. 소설은 여기서 윤리적 딜레마를 넘어, 신이라는 개념이 인간의 고통 앞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이 물음은 서사 구조에도 새겨져 있다.

소설은 로드리고의 편지, 3인칭 서술, 역사 기록의 인용을 교차시킨다. 초반의 편지체는 신의 섭리를 의심하지 않는 확신에 찬 목소리다. 후반으로 갈수록 이 확신은 침식되고, 문제 자체가 신학에서 침묵으로, 웅변에서 침묵으로 이동한다. 형식이 곧 주제를 수행하는 셈이다. 신이 응답을 멈추듯, 문장도 점차 단언을 멈춘다.

이 물음은 두 인물을 통해 심화된다. 페레이라 신부는 배교한다.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다.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린 신자들의 신음을 들으며, 자신의 기도가 그 고통을 멈추지 못한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했다. 이것을 신학의 패배로 읽는 것은 그 시대의 시선이다. 엔도의 시선은 다르다. 페레이라의 배교는 침묵하는 신에서, 고통받는 인간 결의 신으로 옮겨가는 첫 균열이다. 엔도가 이 인물에 실존 크리스토판 페레이라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도 흥미롭다. 역사적 배교자를 신학적 전복의 주제로 다시 쓰는 작업 자체가, 엔도가 역사와 픽션의 경계에서 무엇을 하려 했는지 보여준다.

기치지로도 마찬가지다. 밟고 도망치고 다시 배신하는 인간이지만,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매번 돌아온다. 로드리고가 단 한 번 무너진다면, 기치지로는 그 무너짐을 생애 내내 반복한다. 엔도는 이 인물을 통해 신앙을 강함의 서사가 아니라 약함의 반복으로 다시 쓴다. 유다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운 이 인물이 끝내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소설이 도달하려는 신학의 실제 좌표다.

로드리고가 마지막으로 후미에에 발을 엮을 때, 동판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밟아

도 좋다. 나는 너에게 밝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 목소리를 신의 확정적 응답으로 읽는 것은 소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실제 그리스도의 음성인지, 배교를 정당화하려는 로드리고 자신의 내적 목소리인지, 엔도는 끝까지 판단을 유보한다. 이 모호함이야말로 『침묵』이 지닌 문학적 정직함이다.

17세기의 신앙은 국가 권력이 강요로 시험하는 신앙이었다. 밟느냐 밟지 않느냐는 명확한 선택지였고, 그 선택은 목격되고 기록되고 심판받았다. 지금의 신앙은 강요받지 않는다. 대신 무관심 속에서 서서히 침식된다. 아무도 후미에를 내밀지 않지만, 매일의 무신경한 선택들이 같은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 17세기의 신자는 침묵하는 신 앞에서 절박하게 응답을 구했다면, 지금의 인간은 신이 침묵한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 그렇기에 엔도가 그려낸 침묵은 지금 더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이 소설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는, 원칙과 사람 사이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라는 처세의 질문 때문이 아니다. 침묵하는 초월자를 향한 신앙이, 함께 짓밟히는 존재를 향한 신앙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 때문이다. 로드리고는 후미에를 밟았지만 엔도는 그를 패배자로 그리지 않는다. 판단은 독자에게 남겨진다. 후미에는 책 밖으로 걸어 나와,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다른 얼굴로 다시 놓인다.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피해금 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골든타임은 단 몇 분에 불과하며, 이 시간을 놓치면 되찾을 수 없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가족, 이웃과 함께 예방수칙을 공유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는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는 평소에도 자주 관련 사례를 안내해드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경계가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김제경찰서 신봉지구대
경사 박재원

독자투고

“여보세요” 한마디에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진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면서 검찰·경찰·금융기관을 사칭한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가족을 사칭하거나 정부지원금, 대출병자 등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음성합성 기술까지 동원되어 실제 가족의 목소리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의 핵심은 ‘의심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시 112에 신고하고

사설

정읍시의회 ‘민생 우선’ 결단, 전북 의회로 확산돼야

정읍시의회가 올해 의원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 7,650만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한 것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시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의미 있는 결정이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서민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의회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자세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7,65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의회가 예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시급한 지역 현안과 민생경제 회복에 보태겠다는 판단은 지방의회가 시민에게 보여줘야 할 책임 있는 자세다.

그동안 지방의회와 국외연수는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선진 정책과 우수 사례를 배우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관광성 일정과 부실한 결과보고서, 과도한 비용 등으로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최근에는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도 커졌다.

그렇다고 국외연수 자체를 무조건 없애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해외 선진도시의 산업·복지·환경·도시재생 정책을 직접 살펴보고 이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접목한다면 국외연수 역시 필요한 의정활동이다. 중요한 것은 명확한 목적과 투명한 예산 집행, 그리고 연수 이후 정책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다.

정읍시의회의 이번 결단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도내 지방의회도 관행적으로 편성해 온 해외연수와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 시민이 어려울 때 의회가 먼저 씬 씬이를 줄이고 민생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정읍시의회의 선택이 전북 지방의회 전반에 걸친 예산 운용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오늘의시

가을 / 강은교

기쁨을 따라갔네
작은 오두막이었네
슬픔과 돌이 살고 있었네
슬픔이 집을 비울 때는
기쁨이 집을 지킨다고 하였네
어느 하루 찬 바람 불던 날
살짝 가보았네
작은 마당에는 붉은 감 매달린 나무 한 그루
서성서성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뒤에 있던 산, 날개를 펴고 있었네
산이 말했네
어서 가보게, 그대의 집으로.....

시인 약력 : 1945년 함남 흥원 출생. 서울서 성장하며 경기여고와 연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아대 교수를 역임했다. 1968년 ‘사상계’ 신인문학상에 ‘순례자의 잠’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1975년 제2회 ‘한국문학상’, 1992년 제37회 ‘현대문학상’, 2006년 제18회 ‘정지용 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빈자일기’ ‘벽 속의 편지’ 등이 있고 시선집으로 ‘풀잎’ ‘붉은 강’ ‘허무 수집’ 등 다수가 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전북뉴스 1991년 4월 4일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발행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김제시, 토지행정 불합리 ‘썩’ 손본다

경계조정·지목현실화·공부 정비부터 측량수수료 감면까지

김제시가 토지경계 조정부터 측량수수료 감면까지 시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적행정 서비스를 다각도로 추진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동시에 높이고 있다.

토지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오류나 불편도 곧바로 민원과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에 시는 행정구역 경계의 불합리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정비 사업부터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밀착형 상담 서비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수수료 감면 제도에 이르기까지 지적행정 전 분야에 걸쳐 촘촘한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 한 집인데 동네가 둘?... 현실에 맞게 다시 갖는 경계선

김제시는 도로개설과 택지개발 등에 따른 생활권 변화로 하나의 필지 또는 건축물이 2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경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도 리·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경계 불일치는 주민등록, 인·허가, 각종 공부(公簿) 관리 등 행정 처리 전반에 혼선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와 행정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야기해 왔다.

시는 앞서 지난해 요촌동·검산동·백산면·용지면 등 51개 리·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제 생활권과 불일치한 768필지를 발체하고 관련 조례 개정까지 완료했다.

이에 힘입어 올해는 신평동·금구면·봉남면·황산면·금산면 등 관내 52개 리·동으로 전수조사를 확대 시행 중이다. 주요 정비 대상은 ▲하나의 건축물·토지가 서로 다른 리·동에 걸쳐 있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실제 거주지와 행정구역이 달라 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역 등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병행해 행정구역 조정 과정의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 이후 조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집은 있는데 지목은 ‘전’... 묵은 땅 이름표 바로잡기

시가 2개년에 걸쳐 추진해 온 지목현실화 사업의 완료를 위해 막바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토지 지목의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2025년부터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이 변경된 토지를 대상으로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오랜 기간 주택이나 창고 등이 들어서 있음에도 지목이 전·답·임야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 매매·증여 등 토지 거래 과정에서 각종 제한이 뒤따라 시민 불편을 초래해 왔기 때문이다.

시는 재산세(주박) 과세대상 등 행정자료를 확

용해 2026년도 전수조사 대상 7,500여 필지를 사전 확보하고, 항공사진 비교분석과 현지조사를 병행해 이 중 126필지(3만 5천㎡)를 최종 대상으로 확정했다. 해당 필지는 오는 10월까지 지목변경 등 공부정리를 완료할 목표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103필지의 지목을 현실화한 바 있으며, 토지의 실제 현황과 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재산 가치를 제고하고 거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민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장부마다 다른 내 땅 정보... 부동산 공부, 하나로 맞추다

시는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관련 공부 간 정보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공부는 각기 다른 기관과 시점에 작성·관리돼 온 까닭에 면적, 소유자, 지목 등 정보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불일치는 민원인이 인·허가, 대출, 소송 등 실생활에서 공부를 활용할 때 예기치 못한 지연과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시는 관내 부동산 공부 간 불일치 자료를 전수조사하고, 관계기관 자료와 대조해 정정 필요 사항을 확인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적장부 간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민원인이 공부를 열람·활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불편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지번·지목·면적이 서로 다른 15,021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상 지번·지목·면적이 상이한 2,334건을 조사해 올해 말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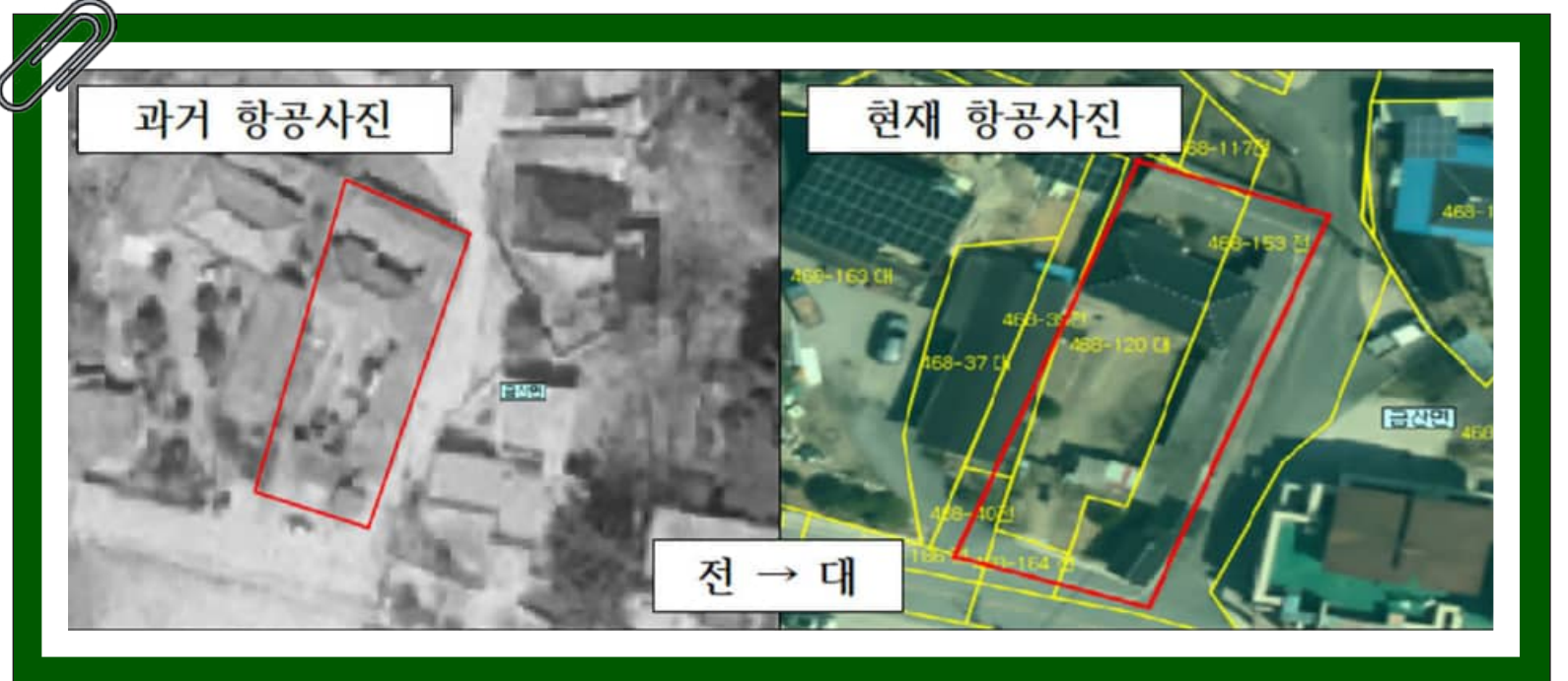
◆ 찾아가는 지적 민원 해결사

시는 시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토지 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접수·처리하는 「찾아가는 지적민원해결사」 서비스를 운영하며 시민 밀착형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토정·신창·송정·제내·영동·목련마을 경로당 등 6개 권역을 2개월 단위로 순회하며, 지적 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상담·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청 방문 자체가 부담스러운 어르신 등 취약계층 주민이 별도 이동 없이도 토지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올해 1~6월 토정·신창·송정마을 경로당에서 30건 이상의 민원을 상담·처리했으며, 7~8월에는 제내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설명·홍보하고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후 9~10월 영



등마을, 11~12월 목련마을 순으로 서비스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향후 더 많은 주민이 서비스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행정복지센터별 이장단 회의를 통한 사업 설명은 물론 마을회관 현수막 게시와 홍보 전단지 배부를 확대하는 한편, 상담을 마친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호응도와 서비스 인지도를 지속 파악해 향후 운영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서비스 완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 토지 재산권의 기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시는 지난 4월 21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개별공시지가 30만여 필지에 대한 적정가격 결정을 의결하고, 관내 307,692필지의 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만큼 그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지가 결정에는 개별공시지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과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바탕으로 지가를 산정하였으며,

인접 지역 간 가격 균형을 면밀히 검토·조정함으로써 공시지가의 신뢰성 제고에 주력하였다.

한편 김제시의 지가변동률은 전년 대비 0.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지가는 1,888,000원, 가장 낮은 지가는 43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무원 필수템, 인트라넷 지리정보시스템 새 옷 입다

인트라넷 지리정보시스템은 지난 2025년 한 해 총 92,502건(로그인 기준)이 접속돼 주간 평균 1,927건에 달할 만큼, 토지 현황 확인과 각종 인·허가·민원 검토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업무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 다만 기존 시스템은 사용자환경(UI)이 노후화돼 정보 검색과 화면 전환 등에서 불편이 있다는 내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활발한 사용 빈도에 걸맞게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화면 구성으로 사용자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실무 수요를 반영한 조회·분석 기능을 추가하는 개선 작업을 추진했다.

기존 시스템은 연속지적도와 수치지형도, 항공정사영상 등을 기반으로 도로명주소,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 등 각종 공간정보를 제공해 왔

으나 단편적인 정보 제공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이번 개선 작업을 통해 토지이용, 브이월드(V-WORLD), 국가교통정보센터 CCTV 영상, 드론촬영 영상 등 외부 정보를 연계·탐색해 보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개선된 시스템이 담당자가 필요한 지리정보를 신속·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고, 나아가 부서 간 정보 공유와 업무 협조 체계를 강화해 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토지 경계 앞, 수수료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지만, 그동안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아 민원인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김제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한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 ‘측량 재의뢰 감면 서비스’를 통해 종목별 기본 단가의 50~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국물건조기·저온저장고 설치 등을 위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30%가 감면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유족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하면 기본단가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건물이나 토지의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1회에 한해 수수료의 100% 또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2026 JINAN RED GINSENG FESTIVAL

진안홍삼축제

2026. 9.18.~20. 일

진안 마이산 북부 일원

9.17 (목) 21시 전야제

홍삼빛 낙화놀이

진안홍삼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사전행사 '홍삼빛 낙화놀이'

9.18 (금) 18시 개막공연

에일리, 테이브레이크

9.19 (토) 18시 레드에너지 페스타

국카스텐, HYNH(박해원), 찬(Chan), 한희

9.20 (일) 17시 제10회 진안고원 트로트페스티벌

심수봉, 이찬원, 장민호, 김다현, 윤수현, 미스김

주요 프로그램

함께라서 더 즐거운 공연!
캐치 티니핑 싱어북쇼, 홍삼빛 낙화놀이(전야제), 홍삼가족공연(마술,발레,버블)

온가족취향차려, 다채로운체험
홍삼버비극, 홍삼한상, 홍삼명인교실, 홍삼깍두기타기, 홍삼 파이프존, 홍삼떡볶이 나눔(with 두끼떡볶이) 마을에서 놀자, 홍삼에너지 충전

머물수록 즐거운 홍삼축제!
홍삼한주제관, 홍삼 키즈존, 홍삼 웰니스타임, 족욕체험 등

전국 특별자치도 최우수 축제 |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주최 | 진안군 주관 |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 | 문의처 063)430-2391~3